

2019-09-02 화 지공여행 10차 무의도

1200 집출발

1216 고터 출발—급행

1245 김포공항역 도착

1255 김포공항역 출발

1335 인천공항역 도착

1345 인천공항역 출발

1355 용유역 도착

1400 걸어서 잠진도 지나

1440 무의도 입도 명계와 막걸리

1540 걸어서 용유도로

1631 용유도역 출발

1644 인천공항역 도착

1655 인천공항역 출발

1733 김포공항 출발급행

1810 고터 출발

김포공항역을 둘러보니 체계적인 설계가 되어 단순명쾌하구나.

지하4층 인천공항방면

지하3층 서울역 방면

지하2층 5호선

인천터미널 1층사 구경

이제 구도를 이해했다.

승무원 출입구를 확인

해해해

재미있다

난 이렇게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예전엔 잠진도에서 배타고 무의도 들어갔는데 이젠 연육교가 건설되어 걸어서 잠진도에서 무의도를 들어간다.

다리가 너무 높아서 무섭고 밑의 낚시하는 사람이 새 같이 보인다.

무의도 중간까지 걸어와 실미도 가는 길로 가며 용과 같이 걷던 옛날을 생각했다.

언젠가 용과 같이 용유도에서 조개구이를 먹으며 장수막걸리를 주문하니 유통기한이 10일이라 취급안한다던 생각이 난다.

용과 같이 배타고 무의도로 건너가 해변에서 실미도를 바라본 적이 있었지

영화 실미도를 생각하며

오늘은 인천공항1터미널에서 자기부상열차를 타고 용유도에 도착하여 걸어서 무의도 일부를 돌아본 뒤 돌아왔다.

2시간이나 걸려 무의도에 도착하여 1시간 걸어다니고

1시간 마시고

1시간 다시 걸어가서 2시간 걸려 집도착

그래도 재미있고 좋다.

나도 말띠다. 히잉!!!